

■ 여야 지방선거 불안감 조기全大 같까

세종시 여론전·비주류 최대 변수로

與 친이-친박 갈등·당직개편 관심 野 정동영 입당·비대위 구성 주목

세종시 논란이 정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지방선거 불안감 때문에 조기전당대회 개최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조기전대론은 여야 모두 비주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힘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세종시 여론전의 결과에 따라서는 증폭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나라당=“민본21”을 비롯한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조기 전대를 통한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는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를 둘러싼 친이-친박간 갈등, 장관급 사무총장 교체 여부를 둘러싼 친이 주류와 정몽준 대표와의 광범한 기싸움은 조기 전대론의 동력을 결정짓는 변수다. 심화되는 계파간 세종시 갈등은 조기 전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자칫 ‘세종시 찬반 전대’가 될 수 있고, 이는 분당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 친이계 의원은 17일 “현 상황에서 전대를 개최하는 것은 세종시 갈등을 부추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가 조기에 진화되거나 세종시법안 처리가 조기에 무산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진화할 경우에는 친이계 핵심인 장관급 사무총장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 대표와 ‘장관급 구하기’에 나선 주류측의 힘겨루기가 조기 전대 개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세종시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론은 분위가 쇠신과 지방선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기전당대회를 해법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역시 비주류 측 주장이지만 한

나라당과 달리 조기전대보다는 비대위 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지도부의 교체를 주장한다는 의미에서는 한나라당과 같은 상황이다.

비주류연합인 민주연대 공동대표 이종걸 의원은 17일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인색한 상황”이라며 “국민참여당 창당 등 분열을 방지한 책임자는 일선에서 후퇴하고 아권통합을 위한 새 지도부 구성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역시 비주류인 국민모임은 최근 토론회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시간적 여유가 없

는 만큼,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비대위)로 전환, 새로운 얼굴을 당 전면에 내세워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현 지도부를 겨냥했다. 국민모임 소속 일부 의원은 또 정세균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를 위해 당헌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한편 지난 연말 은밀하게 사조직을 점검하고 가동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같은 비주류의 공격은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 논란, 수도권 후보들의 정 대표에 대한 불신감 등이 맞물리면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희태 의원 홍사덕 의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희태·홍사덕·안상수 3파전 유력

후반기 국회의장 누가 노리나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은 누가 될까. 새 국회의장 선출까지 4개월여를 남겨놓고 있는 17일 현재 국회의장 경쟁은 아직 수면위로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하마평이 정치권 내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한나라당의 최다선(6선) 의원인 박희태, 홍사덕 의원과 4선의 안상수 원내대표 등 3명.

이들 가운데 박희태 의원이 입법부 수장직 도전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공천에서 탈락, 정치적 내리막길을 걷는 듯했으나, 지난해 10·28 재선거에서 명예회복을 한 박 의원은 당선 직후 “국회의장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적 환경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홍사덕 의원이 박 의원과 같이 경륜의 6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지만 당내 소수파인 친박(친박근혜)계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런 가운데 안상수 원내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2008년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경쟁했다. 이 점에서 재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나, 유력한 당권 주자라도 분류되기 때문이다. 만약 당 전당대회가 3~4월에 치러질 경우 안 원내대표는 당 대표직을 노릴 수 있겠지만, 조기 전당대회가 무산될 경우 당권과 입법부 수장직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 원내대표가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이라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원활한 국정운영’ 역량이 부각돼 국회의장 후보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주도하는 국민참여당이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당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당 출범... 지방선거 호남 연대 가능성

당대표 이재정... 최고위원 천호선·이백만 등 5명 선출

친노 창당파가 주도한 국민참여당이 17일 출범함에 따라 지방선거 판도는 물론 호남 지역의 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참여당이 이날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당원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당대표로 선출하는 등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최고위원에는 천호선,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충환 전 청와대 혁신비서관, 김연대

전 열린우리당 의원, 오목만(여) 전 제주도 의원(이상 득표순)이 선출됐다.

정치권은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참여당의 미래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존재감을 과시한다면 아권의 한 축으로 부상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창당 실험이 ‘창당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국민참여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지지율 20% 확보며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고 영·호남에

서 지역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민참여당이 야권 연대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결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손을 잡고 민중정당 창출을 명분으로 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참여당이 과거 열린우리당에 참여, 상당한 지분을 확보했던 개혁당의 길을 다시 걷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이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나선다면 호남의 선거 판도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수도권 등에서 국민참여당이 후보단일화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 지지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당선 가능성이 큰 호남지역 공천에서 국민참여당에 일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 연대 등을 이유로 지방의원의 15%를 전략 공천하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기초단체장 공천의 경우, 후보단일화 방법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된다면 국민참여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공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분열은 지방선거의 패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의 선거 연대는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이라며 “이 경우, 호남지역 지방선거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조선대 구 재단 복귀 민주화 후퇴”

○“민주노동당 광주지당은 논평을 통해 “보수정권을 등에 업고 살며시 구 재단 세력인 박철용씨 일가가 정이사로 선임하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조선대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지역 민중들의 염원을 모아 설립된 학교인 만큼 지역사회가 조선대 문제를 자세히 살펴야 하며, 조선대 비대위 투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교재유 전 광주지당·강박민 광주시의회 의장 등 정치인·시민 등 4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편, 김 부구청장은 이날 중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환규씨 출판기념회 성료

○“김환규 전 북구 부구청장은 지난 1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자신의 35년 공직생활을 자서전 형식으로 쓴 ‘함께 만드는 세상, 함께 나누는 세상’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박준선 최고의원·이용섭 국회의원·전갑길 광산구청장·송광운 북구청



매니페스토 대상 지방의원 선정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15일 ‘제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의원 분야 광역의원 수상자로 광주시의회 강박민 의장(민주당·광산 1)과 조호권 의원(민주당·북구 4), 전남도의회 국령애(민주당 비례)·박홍수 의원(민주당·순천 1)을 선정했다. 또 기초의원 분야에서는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원산)을 선정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공보물에 실린 공약을 기준으로 공약처리 상황 및 공약이행 과정에서 주민소통 실천내용을 평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랜드3 공인중개사학원
http://kwangju.land3.co.kr

전국 최다 합격생 배출한 그학원 LAND3
2010년도 100% 합격보장!!

개강 **1월 4일** **국비환급 100%**

- ▶ 동영상 무료 전과목(연회원)
- ▶ 교재무료 ▶ 오답 노트 제공
- ▶ 기본서 6권 제공
- ▶ 동영상 강의만(6과목) (가입시 부터 ~2010.8.31~ 290,000원)

민개공 3인방

- 박홍전 교수(개론)
- 강근호 교수(민법)
- 고상철 교수(공법)

LAND3 529-8838
합격의 새로운 이념 윤임동 광안고기 옆 삼애신협 2층

경찰교육의 명문

김재규
경찰학원의
합격신화는
계속된다!

원장 경찰학 박사 김재규

한번 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합격회원제(5년) | 1년 회원제 | 6개월 회원제
이론종합반 | 문제풀이반

최고의 시설
KPA 싱글하우스 | KPA 독서실 | 무료 동영상실 |
무료 자습실 | 편안한 휴게실 | 체력단련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 062)236-3112 | 전담여고 후문 앞

제3종 (자동차 대인·대물)
손해사정사

농산물 품질 관리사

제1회 보험심사역

개강 **1월 15일** * 국비지원 · 고용보험환급
* 농품사시험일 **평일반**
(2010년 5월9일) **주말반**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상담문의 **361-8110**
농성동 서구청앞 광주은행 2층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 중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 **실업자 및 계약제**
- 대상 : 실업자 야간대상 등 - 개강 : 2월 1일
- 현재 접수 중, 선착순 00명
5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야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람

❖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 **산재장애인(무료)훈련수당 지급**
❖ **특전** - 병원, 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직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역 특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알선(임용연기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